

오전11시	인도 : 최세열목사
◆경배와 찬양의 예배◆	
※ 입례송 621장(찬양하라 내 영혼아)
※ 예배부름 인 도 자
※ 예배기원 인 도 자
※ 경배찬송42장(거룩한 주님께)
※ 교독문 29(시편 65편)
※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212장(겸손히 주를 섬길 때)
예배기도 1부 박세일집사 2부 한상호집사
응답송 찬 양 대
이달의찬양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협력기도 / 한마음기도 / 중보기도 다 갈 이
*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 이 땅위에 참된 평화를 주시고, 바른 문화가 세워지게 하소서.	
*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예배◆	
성경봉독 다니엘 1:8-15
찬 양 임마누엘찬양대
말씀선포 “ 뜻을 세우고 살아갑시다 ”
기 도 최 세 열 목 사
◆응답하는 예배◆	
찬 송 312장(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봉 헌 (바울회)
봉헌기도 담임목사
친교와소식 말 은 이
※ 찬 송 1장(만복의 근원 하나님)
※ 축 도 담임목사
※ 축 복 송 찬 양 대
*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배 후에 다섯분 이상, 15분 이상 서로 친교 하십시오.”	

찬양예배 / 오후2시		수요예배 오후7:30		새벽기도회(월-금)	
인 도 / 담임목사	인 도 / 최세열목사	인 도 / 최세열목사	인 도 / 최세열목사	새벽 5:00	인도 : 담임목사
찬 양 / 다 함 계	찬 양 / 다 함 계	찬 양 / 다 함 계	찬 양 / 다 함 계	이사야서 강해	
기 도 / 공영순권사	기 도 / 한마음기도	기 도 / 한마음기도	기 도 / 한마음기도	금요기도회	
본 문 / 사도행전 9:31	본 문 / 로마서 12:1-2	본 문 / 로마서 12:1-2	본 문 / 로마서 12:1-2	금요일 오후 9시	한마음기도, 중보기도
말 씀 / 최세열목사	말 씀 / 최세열목사	말 씀 / 최세열목사	말 씀 / 최세열목사	개인기도	
*Acts29 -제1과장 교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2강 사도행전의 성령	주기도문 / 다갈이	주기도문 / 다갈이	주기도문 / 다갈이		
축 도 / 최세열목사					
예배위원	안내위원	류종란 민영화 함경숙 김한순	다 음 주 기 도	1부	원혜경집사
		김금자 김영란 김기수 노대성		2부	강항구장로
	헌금위원	6월 방옥남 최임춘 엄정현 박현순	다 음 주 성경봉독	1부	말 은 이
		7월 김한순 노재의 한미경 정재영		2부	김대봉권사
	식당봉사	금주 사라회 다음주 바나바회	다음주 찬양예배기도		
헌신찬양	금주 바 울 회	다음주			5구역

뜻을 세우고 살아갑시다 / 다니엘1:8-15

모든 것이 성장하는 계절입니다. 자연의 성장원리는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의 의지와 생각에 따라 성장하며, 우리의 의지와 생각이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회공동체의 흐름에 따라 평안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좀 다릅니다.

1. 뜻을 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기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왕의 특별한 정책을 의해서 지도자양성 교육기관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삼년동안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했고, 음식조차도 왕이 정해놓은 것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정책은 식민지의 지도자들에게 바벨론의 문화와 종교를 가르쳐 자기민족의 정통성이나 종교를 잊어버리게 함으로 영구히 지배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의 이름까지도 바벨론 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런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라는 신분과 그 학문을 배워야 하는 현실을 바꿀 수는 없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오늘 우리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외형적으로는 무엇을 강요받고 있지 않지만 삶의 내용을 보면 엄청난 문화적인 도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매체를 통해 다가오는 대중문화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대중문화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흐름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우리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갈등과 고민을 경험하겠지만 그리스도인다운 결단을 이루어야 합니다.

2. 뜻을 세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왕의 정책과 출세라는 유혹 앞에서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이들은 무엇보다 우상숭배에 바쳐진 음식을 거절하고 열흘 동안 자신들이 원하는 음식을 먹고 건강상태에 대한 점검을 받겠노라고 제안합니다. 이는 곧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니다.

이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9).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15)고 했습니다.

그리고 3년 교육이 끝났을 때 그들은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십 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1:20)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사자 굴에 던져졌을 때에도, 세 친구들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아 풀무 불에 던져졌을 때에도 그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고, 그 때마다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뜻을 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은 결코 허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고 뜻을 세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주제 / 6. 성령(2013.6.16.)

제 3 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사도행전 1장 4-8절)

말씀 살피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 40일간 사역하시면서 부활의 사실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세례를 받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1.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성령의 강림에 대한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무엇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까?(4절).
2.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사도들은 몇 날이 못 되어 무엇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까?(5절)
3.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에 대해서 사도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7-8절)

말 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인격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며, 느끼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믿음을 주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성령과 동행하여야 합니다. 성령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성령세례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 올라가 성령 세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니다. 제자들은 성령세례를 받음으로 변화되었고 담대한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시107:9)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둘째, 성령 세례는 회개할 때 임합니다.

성령 세례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시인하는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행2:38)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날 때 성령은 우리에게 찾아와 거하십니다. 성령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행1:8)고 하셨습니다. 이 힘은 지식이나 돈, 권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하늘의 능력과 신령한 힘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말합니다.

성령세례를 받으면 믿음이 굳건해지고 거룩과 성결을 경험하게 됩니다. 개인의 삶에, 몸과 영혼에 생동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용기와 담대한 능력을 주십니다.

말씀적용

1. 성령세례를 받은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봅시다.
2. 성령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해봅시다.

●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냐 오늘 등록하신 분,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오늘은 평신도 참여예배로서 바울회가 함께 했습니다.
2. 예배 후에 제1, 제2권사회 모임이 각각 본당에서 있습니다.
3. 신도회 찬양대회가 6월 23일 주일 찬양예배시간에 있습니다. 각 신도회는 찬양대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참가곡 : 복음송 1곡)
4. 교회학교의 어린이 여름성경학교와 청소년부의 수련회를 앞두고 여름행사를 지원하는 헌금을 하기로 제직회가 결의했습니다. 헌금은 다음주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헌금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5. 동수원시찰회 교역자회가 6월 18일(화) 오전11시에 밀알교회에서 있습니다.
6. 여신도회 경기연합회 수원지구회가 6월 18일(화) 오전 10시 30분에 광고 호수공원에서 모입니다.(교회에서10시에 출발합니다)
7. 한신대학교회 김동영목사님의 담임목사 취임식이 오늘 오후 4시30분에 있습니다.

향기로운 예들과 봉사

- 십 일 조 : 정선례 박희순 이완수 김봉순 한상호 차소라 김선자 서영자 김영란 박정일 박지영 홍강의 김성희 김선주 원혜경 김희숙 이경훈 박세일
- 감사헌금 : 김혜경 양석임 이완수 김봉순 홍경호 김정민 이종춘 심문자 노재의 김영란 안진영 한옥자 무명2
- 건축헌금 : 심승기 박희순 홍강의 김성희 노순영 마르다회
- 비전씨앗 : 배영인 김태라
- 총선교주일헌금 : 최임춘 강항구 류종란 허 웅 김애자 정선례 이현옥 박희순 최세열 안복선 김한순 박치국 이영란 김홍영 무명2

구역 예배를 통한 복음전파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곳	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곳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곳	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곳
1	박홍만	김금자	김금자	4	11,000	25	김귀래	7	강은순	이영선	강은순	8	19,000	70	김성희
2	정정희	김현순	김현순	4	17,000	27	박희순	8	김순님	오복실	차소라	4	21,000	50	허 웅
3	이춘호	함경숙	이춘호	3	15,000	100	이현주	9	김인순	이영란	박기환	3	11,000	80	김미연
4	김기희	최경선	임애경	4	11,000	56	김춘자	10	장영분	박현순	이종열	2	10,000	100	안복선
5	이문순	원혜경	남궁순	3	13,000		정혜진	계				41	148,000	688	
6	류종란	김애자	교 회	4	20,000	180	정재영								

예배시간안내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주 일 예배	주 일	오전9시,11시	본 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시	소예배실
찬 양 예배	주 일	오후 2시	본 당	어린이예배	주 일	오전11시	종합교육실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소예배실	청소년예배	주 일	오전11시	소예배실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시	소예배실	청 년 부	주 일	오후 2:30	전도실

타과 뜻

한 때 어두운 시련에 빠진 적이 있었다. 나의 첫 반응은 '내 탓'이었다. 고난당하면 응답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하거늘 분노하고 화를 터뜨리곤 했다. 책임 전가할 희생양을 찾았다. 허나, 남 탓을 할수록 나만 힘들었고 남을 물어뜯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니 나를 뜯어먹고 있었다.

다음은 '내 탓'을 했다. 나 역시 죄 없다 말할 처지가 아님은 누가 뭐래도 내가 제일 잘 안다. 문제의 일부이자 문제를 풀 당사자 또한 나다. 하여, 가슴을 치며 '내 탓이다'를 외쳤다. 그럴수록 자기혐오와 수치심만 더했다. 억울하게 당하는 일인데도 내 잘못이라 여기니 더욱 힘들 수밖에.

마지막은 '하나님 탓'이었다. 남도, 나도 아니라면 남은 것은 하나님뿐이다. 그분이 허용하지 않는 한 그런 일이 벌어질 리 만무하다는 데 생각이 미쳤다. 원망스러워 많이 울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고 나를 제일 사랑하는 그분이 의미 없이 고난당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하자 내 고난의 학교에 해가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뜻을 세우라

조선조의 위대한 학자 율곡(栗谷) 선생은 "선수입지(先須立志)", 먼저 모름지기 뜻을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유지자 사경성야(有志者 事竟成也)"라는 말도 있습니다.

뜻이 있는 사람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고 만다는 말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뜻'(Will)이란 무엇을 하려고 속으로 먹은 마음입니다.

사람은 뜻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뜻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 줍니다.

뜻이 있는 사람은 눈빛이 빛나고 발걸음도 활기칩니다.

뜻은 뜻을 성취하는 원동력입니다.

뜻이 없는 인생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목표가 없는 항해와 같습니다.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시간을 아끼고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뜻에 관한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입지'(立志)입니다. 뜻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양지'(養志)입니다. 뜻을 키우는 것입니다.

셋째, '성지'(成志)입니다.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루기 위해 백 번 연습하고 천 번 갈고 닦는 것입니다.(百練千磨)

누군가 그랬습니다. "하늘의 것을 목적하라. 땅의 축복은 저절로 따라 온다" 한 가지 뜻을 이루고자 자신을 온전히 쏟아 부을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뜻을 품고 오셨습니다.

원천교회비전선언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한 몸이 되고, 한 몸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따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선교 한다”

2013-24 2013.6.16

6 월의 행사

1. 제직회 : 6월 2일 주일예배 후 본당.
2. 평신도참여예배 - 바울회(6월 16일)
3. 신도회별 찬양대회 - 6월 23일 찬양예배시간 (복음송 가운데 1곡 / 담당:진교부장 김혜경권사, 강은순전도사)
4. 해든솔 선교활동 -6월 8일 오전8시 30분
5. 성령충만을 위한 작정밤기도회 : 7월 1(월)-5일(금)
6. 총회선교주일 : 6월 9일
7. 총회 60주년 선교기념예배 : 6월 10일 한신대학교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독일 전역이 30년간의 종교전쟁으로 폐허가 됐을 때 눈물의 기도를 드리던 한 목사가 있었다. 그는 핍박받는 신자들의 가정을 찾아다니며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설상가상으로 독일 전역에 흑사병이 나돌아 1천 만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독일은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다.

목사 부부는 어느 날 중병을 앓고 있는 한 신자의 가정을 심방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 목사 부부는 처참한 광경을 목도했다. 교회와 집이 불에 타 잿더미로 변해 있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은 서로 겨안은 채 죽어 있었다.

이들 부부는 아들의 시체를 부둥켜안고 울면서 조용히 기도를 올렸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이 사람의 이름은 벤자민 슈몰크목사. 그때 올린 기도예 곡이 붙여진 것이 바로 찬송가 431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다. 고통과 시련까지도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담임목사 : 최세열(imcsr@hanmail.net)

사무장로 : 박홍만 강항구

교육전도사:강은순, 이경훈 지휘:김영란 반주:안진영